

동향과 이슈 2020-03

서울의 노동 동향 2020

박정우


서울노동권익센터

동향과 이슈 2020-03

발행일 2020. 12. 발행인 이남신

발행처 서울노동권익센터

03191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105 전태일기념관 5층 Tel 02) 6935-4349 Fax 070-8250-4349 www.labors.or.kr

I·SEOUL·U
너와 나의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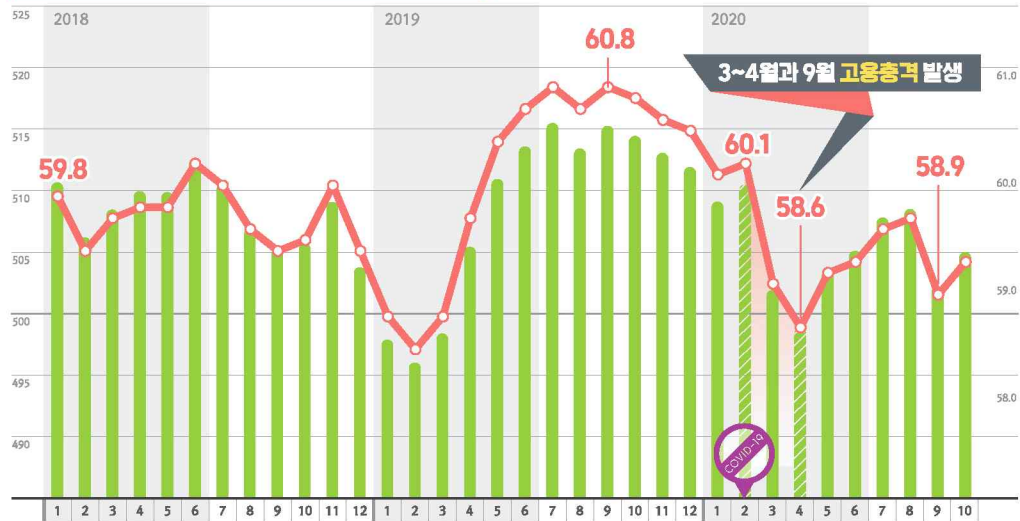

서울노동권익센터

18~20년 서울의 고용동향

취업자와 고용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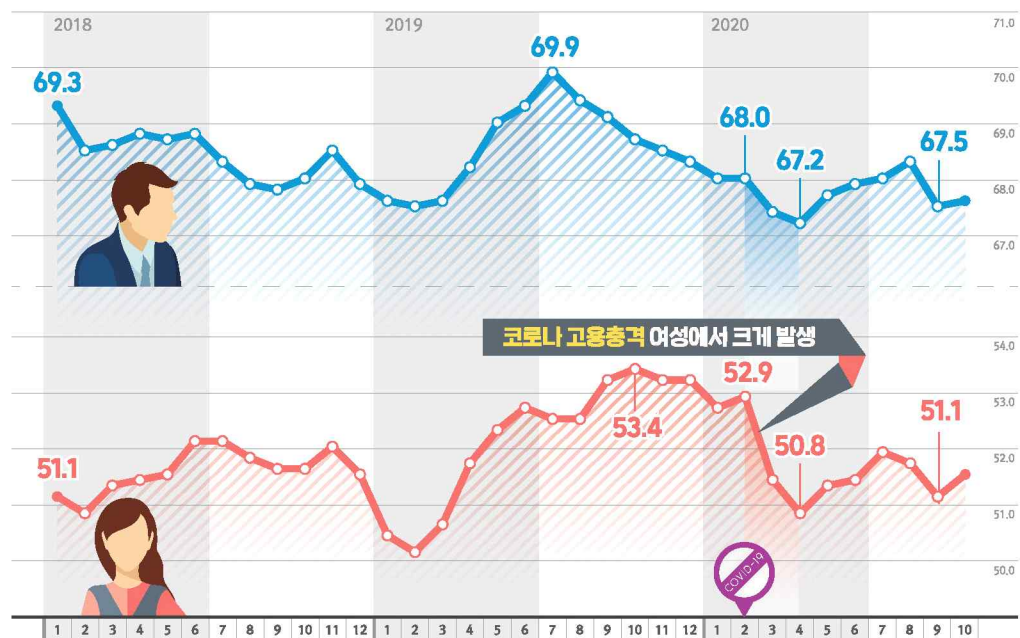
● 서울 취업자 수(만 명) ● 고용률(%)

2020년 취업자 추이 3년 중 가장 나쁜 수준



성별 고용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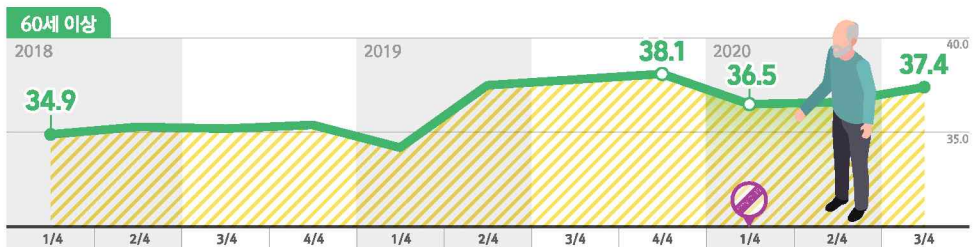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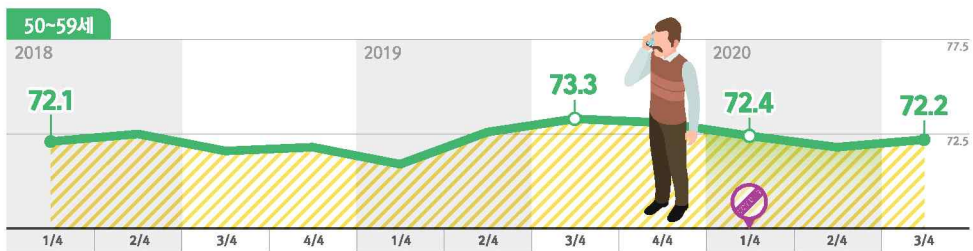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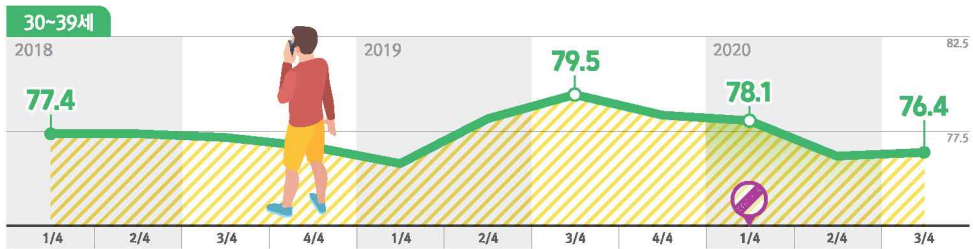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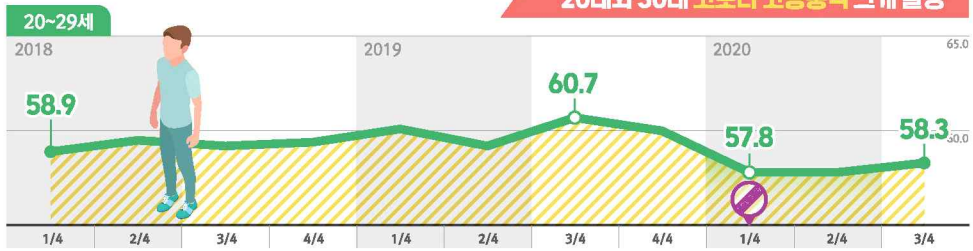
● 남성(%) ● 여성(%)



연령대별 고용률 추이

● 고용률(%)

20대와 30대 코로나 고용충격 크게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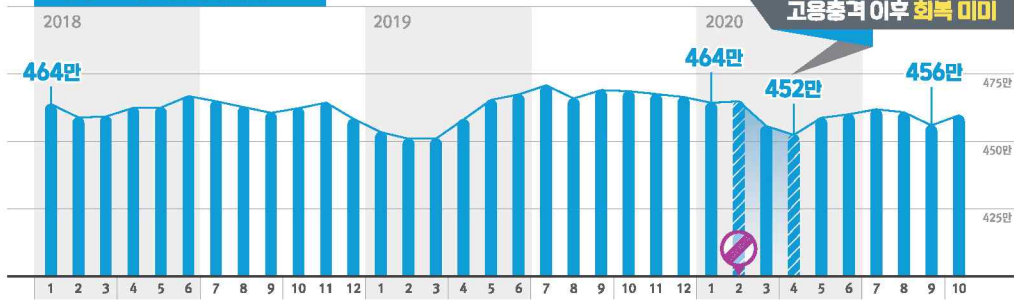


18~20년 서울의 취업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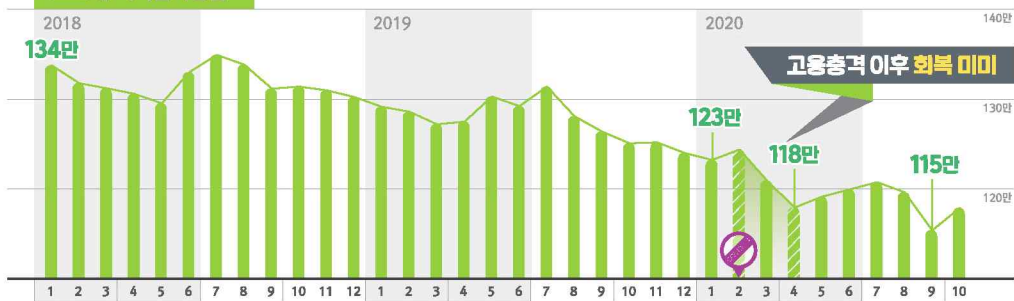
업종별 취업자 추이

● ● 취업자(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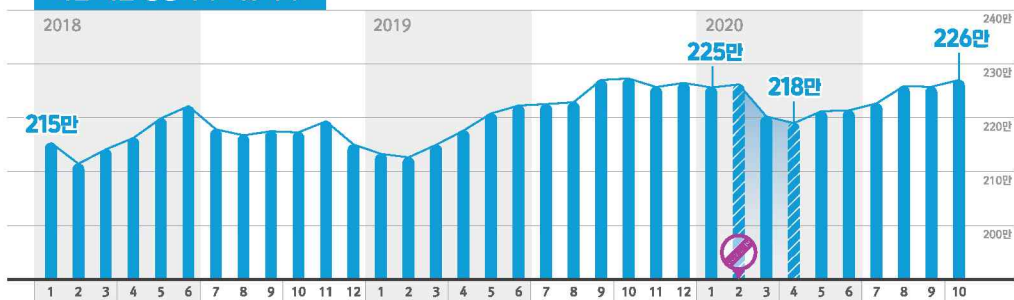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도소매·숙박음식점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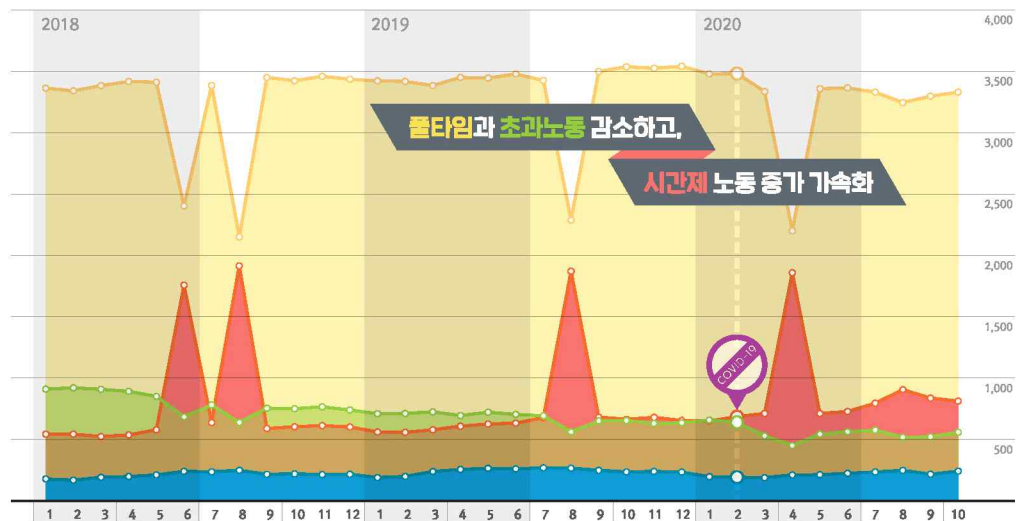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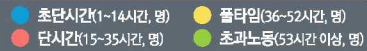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전기·운수·통신·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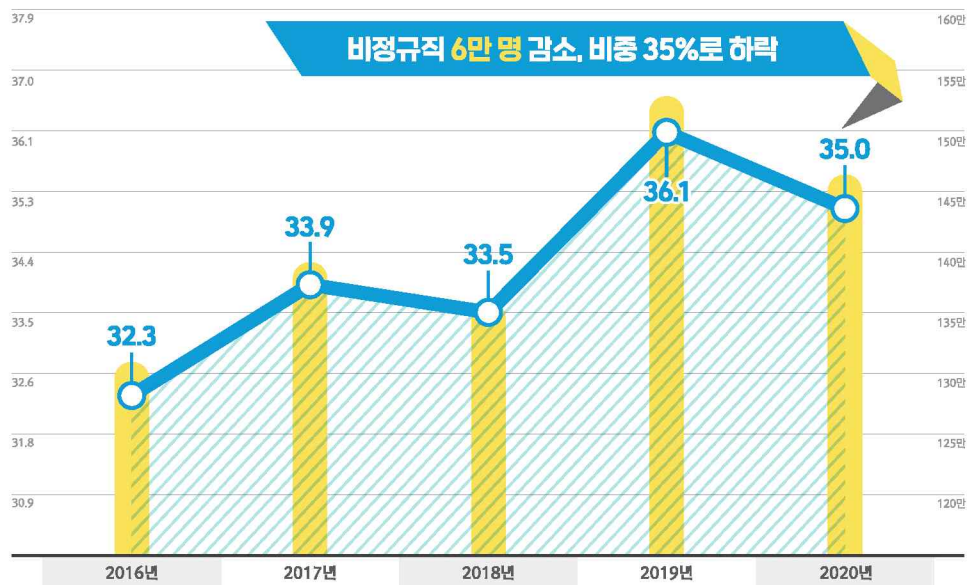
● ● 취업자(명)



18~20년 서울의 취약계층 근로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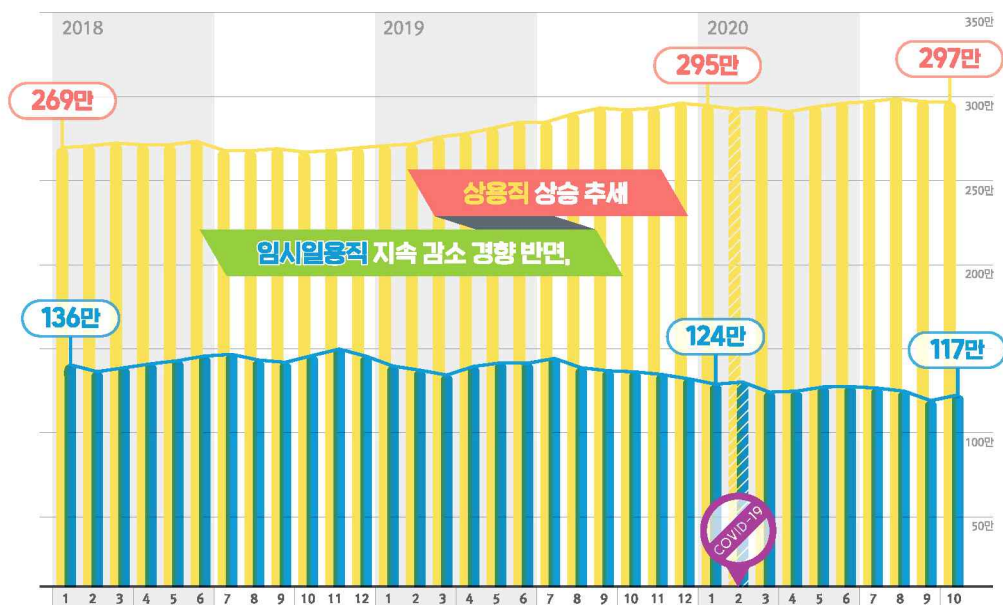
비정규직 추이

● 비정규직 비율(%) ● 비정규직 노동자(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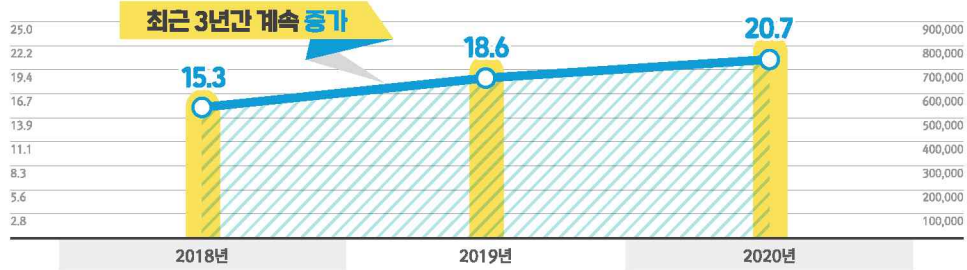
종사상 지위별 노동자 추이

● 임시일용직(명) ● 상용직(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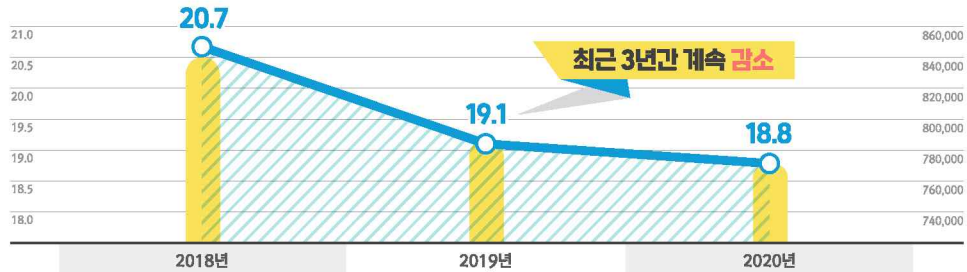
기간제 노동자 추이

● 임금노동자 중 비율(%) ● 기간제 노동자(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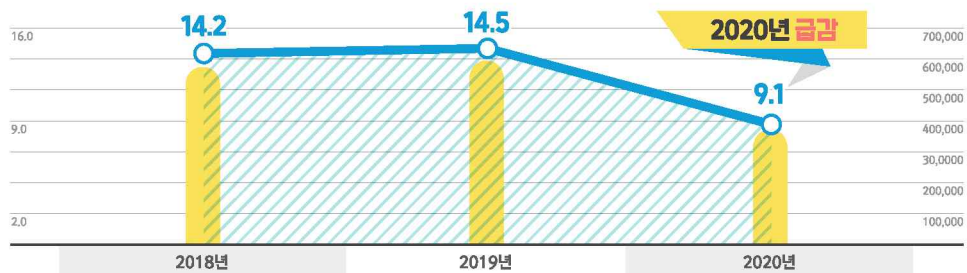
저임금 노동자 추이

● 임금노동자 중 비율(%) ● 저임금 노동자(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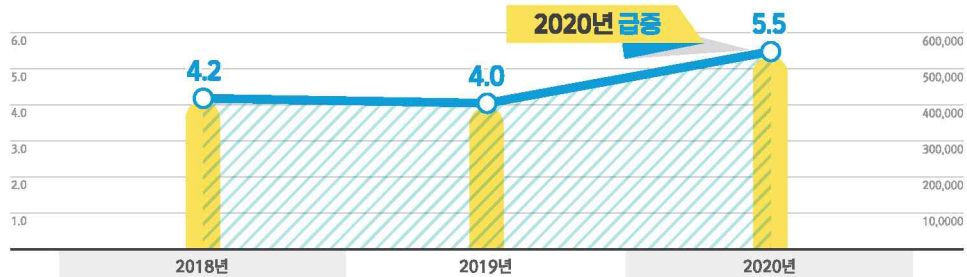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추이

● 임금노동자 중 비율(%) ●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명)



니트(NEET) 인구 추이

● 서울 인구대비 비율(%) ● 니트(명)



- 목 차 -

I. 2020년 서울 노동 동향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1
1. 고용 동향	1
2. 취업자 동향	2
3. 취약계층 노동자 동향	3
II. 고용 동향	5
1. 경제활동 동향	5
1) 서울지역 취업·실업 추이	5
2) 서울지역 성별 고용률과 실업률 추이	7
3) 서울지역 연령별 고용률 추이	9
2. 취업자 동향	11
1) 서울지역 종사지위별 취업자 추이	11
2) 서울지역 업종별 취업자 추이	13
3) 서울지역 직종별 취업자 추이	14
4) 서울지역 취업시간별 취업자 추이	16
III. 서울지역 취약계층 노동 동향	18
1. 서울지역 비정규직 노동자 추이	18
2. 종사상 지위별 임금노동자 추이	18
3. 기간제 임금노동자 추이	19
4. 저임금 노동자 추이	20
5.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추이	21
6. 니트(NEET) 인구 추이	21

- 표 목차 -

〈표-1〉 20년 서울의 취업자와 고용률 추이	6
〈표-2〉 20년 서울의 실업자와 실업률 추이	7
〈표-3〉 20년 서울의 성별 고용률 추이	8
〈표-4〉 20년 서울의 성별 실업률 추이	9
〈표-5〉 20년 서울의 연령별 고용률 추이	11
〈표-6〉 20년 서울의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추이	12
〈표-7〉 20년 서울의 업종별 취업자 추이	14
〈표-8〉 20년 서울의 직종별 취업자 추이	15
〈표-9〉 20년 서울의 취업시간별 취업자 추이	17
〈표-10〉 20년 서울의 종사상지위별 노동자 추이	19

- 그림 목차 -

〈그림-1〉 18~20년 서울의 취업자와 고용률 추이	5
〈그림-2〉 18~20년 서울의 실업자와 실업률 추이	6
〈그림-3〉 18~20년 서울 남성의 고용률 추이	7
〈그림-4〉 18~20년 서울 여성의 고용률 추이	8
〈그림-5〉 18~20년 서울 남성의 실업률 추이	8
〈그림-6〉 18~20년 서울 여성의 실업률 추이	9
〈그림-7〉 18~20년 서울 연령대별 고용률 추이	10
〈그림-8〉 18~20년 서울의 임금 취업자 추이	12
〈그림-9〉 18~20년 서울의 비임금 취업자 추이	12
〈그림-10〉 18~20년 서울의 업종별 취업자 추이	13
〈그림-11〉 18~20년 서울의 직종별 취업자 추이	15
〈그림-12〉 18~20년 서울의 취업시간별 취업자 추이	16
〈그림-13〉 16~20년 서울의 비정규직 추이	18
〈그림-14〉 18~20년 서울의 종사상지위별 노동자 추이	19
〈그림-15〉 18~20년 서울의 기간제노동자 추이	20
〈그림-16〉 18~20년 서울의 저임금노동자 추이	20
〈그림-17〉 18~20년 서울의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추이	21
〈그림-18〉 18~20년 서울의 니트인구 추이	22

서울의 노동 동향 2020

박 정 우
서울노동권익센터 연구위원

I. 2020년 서울 노동 동향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1. 고용 동향

- 2020년 취업자 수 최근 3년 중 가장 나쁜 수준임. 3월과 4월에 급속도로 줄은 이후 8월까지 회복하였지만, 9월에 다시 급락함.
 - 10월 기준 취업자 수 5,04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만 명 정도 취업자 급감
 - 고용률도 59.2%로 전년동월대비 -1.5%p 하락
 - 코로나19의 확산세의 부침에 따라, 고용상황도 급증과 급락이 나타나 사회적 충격을 주었음.
- 실업 추이도 등락을 반복하고 있음. 연초부터 5월까지 빠르게 상승하던 실업 추이가 8월까지 다시 빠르게 완화되었다가, 다시 악화되는 추세를 보임.
 - 가장 실업 상황이 심했던 5월엔 서울의 실업자가 30만 8천명으로, 실업률은 5.8%로 나타남.

2 서울의 노동 동향 2020

- 단, 실업 추이가 개선되었다고 노동시장 상황이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취업자 수, 니트인구 등 다른 노동지표를 함께 봐야할 것임.

□ 2020년 여성의 고용 추이가 코로나 상황에서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특징을 보임

- 3월과 4월에 여성 고용률은 50.8%까지 급락하였고, 다시 7월까지 상승하다가 8월에 다시 급락하였음.
-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크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음.

□ 20대와 30대 코로나19 고용충격 가장 크게 나타남

- 20대와 30대는 최근 3년 간 추이를 볼 때 2020년 감소폭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특히, 20대는 20년 1분기에 가장 먼저 고용률이 급락하는 경향을 보여, 1차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나타남.
- 60대의 경우 코로나 충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진 않음.

2. 취업자 동향

□ 비임금 대비 임금노동자 취업 추이 크게 탄력적으로 변동

- 임금노동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을 그대로 드러냄. 2020년부터 계속 줄어왔던 임금노동 취업자들이 4월까지 410만 명 수준으로 빠르게 감소하다가, 그 이후 8월까지 418만 명으로 증가함. 다만, 최근 9월에 다시 410만 명으로 급감했다가 10월에 회복하는 모습을 보임.

□ 사회간접자본서비스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 관리전문직과 서비스·판매종사자에서 고용충격 확인됨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취업자 수의 감소 추이가 눈에 띄게 크게 나타났음. 특히, 도소매음식숙박업은 취업자 수가 2020년 매우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데, 1월 123만 명이던 수치가 9월 115만 명으로 8만 명이 감소함.
- 관리전문직과 서비스판매종사자의 취업자 수 감소 추이가 크게 나타났음. 관리전문직은 1월 155만 명에서 4월 150만 명으로, 서비스판매종사자는 114만 명에서 109만 명으로 각각 5만 명이 감소하였음.

□ 풀타임과 초과노동 빠르게 줄고, 초단시간과 단시간 노동 증가

- 코로나19는 풀타임과 초과노동을 줄이는 충격을 줌. 특히, 52시간의 초과 노동자들을 빠르게 감소시키는 것을 가속화함. 1월 65만 명이 8~9월 52만 명 수준으로 급감함.
- 코로나19는 평균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3. 취약계층 노동자 동향

□ 2020년 비정규직 전년동기대비 6만 명 감소하고, 비중 35% 수준으로 1.1%p 하락

- 2020년 서울의 비정규직은 146만 명으로 2019년 대비 6만 명 감소

□ 임시일용직 지속적으로 감소 경향 반면, 상용직 4월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 경향 보임

- 2020년 연초 125만 명이던 임시일용직 9월에 113만 명으로 12만 명 감소
- 상용직은 4월 저점 290만 명에서 297만 명으로 7만 명 상승 추이

□ 2020년 저임금 노동자와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빠르게 감소

4 서울의 노동 동향 2020

- 저임금노동자 최근 3년간 꾸준히 감소. 2020년 77만 명으로 전년대비 1만 명 이상 감소함. 그 비중도 18.8%로 0.3%p 하락
-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37만 명으로 작년보다 22만 명 이상 감소. 차지 비중도 9.1%로 5.4% 하락함. 최저임금 인상율이 낮은 영향으로 보임.

□ 코로나19로 서울의 니트인구 급증

- 조사시기에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인구 53만 명으로, 전년대비 13만 명 이상 증가함. 서울인구 대비 비중이 5.5%로 전년대비 1.5%p 상승함.

II. 고용 동향

1. 경제활동 동향

1) 서울지역 취업·실업 추이

□ 2020년 취업자 수 최근 3년 중 가장 나쁜 수준

- 2020년은 2018년과 2019년에 비해 취업자가 눈에 띄게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10월 기준으로 보면, 5,048천 명으로 19년 동월 대비 약 10만 명 정도는 취업자가 줄었음. 고용률도 59.2%로 -1.5%p 정도 줄은 것으로 나타남. 18년과 비교해보아도 평균적인 고용 추이가 하단수준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2020년의 취업은 3월과 4월에 급속도로 줄은 이후로 8월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그러나 9월에 다시 급락하였다가 다시 증가함. 코로나19의 확산세에 따라 급등과 급증으로 변동성이 커, 사회적 충격과 혼란을 주고 있음.

<그림-1> 18~20년 서울의 취업자와 고용률 추이

(단위 : 천 명, %)



6 서울의 노동 동향 2020

<표-1> 20년 서울의 취업자와 고용률 추이

(단위 : 천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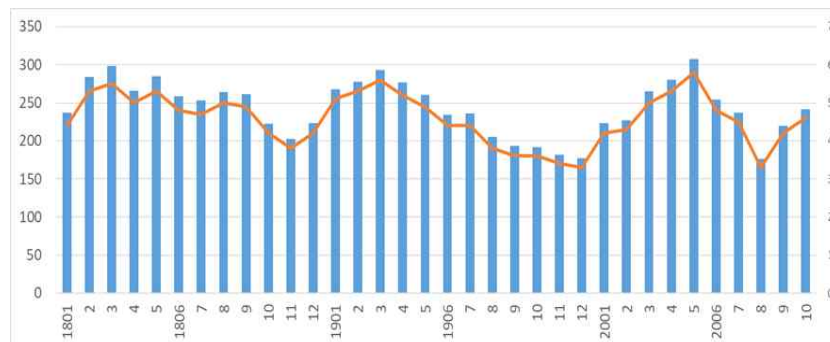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취업자	5089	5103	5017	4986	5033	5049	5076	5083	5020	5048
취업률	60.0	60.1	59.0	58.6	59.1	59.2	59.5	59.6	58.9	59.2

□ 2020년 실업자 수 등락을 반복하는 양상

- 2020년은 2018년과 2019년에 비해 실업자 수가 등락을 보이는 특징을 나타냄. 1월부터 5월까지 빠르게 상승하던 실업 추이가 8월까지 급락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추세 보임.
- 가장 실업 상황이 심했던 것은 지난 5월로, 30만 8천명이 실업자였으며 실업률은 5.8%로 나타남. 이는 최근 3년 내에 가장 높았던 수치임.
- 단, 실업 추이가 개선되었다고 노동시장 상황이 개선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취업자수가 늘지 않았으나 실업률이 낮아져 니트족과 같은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음.

<그림-2> 18~20년 서울의 실업자와 실업률 추이

(단위 : 천 명, %)



<표-2> 20년 서울의 실업자와 실업률 추이

(단위 : 천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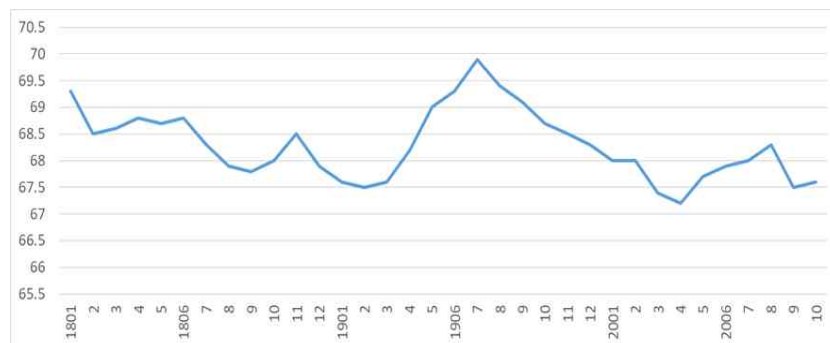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실업자	224	227	265	281	308	254	237	176	220	242
실업률	4.2	4.3	5.0	5.3	5.8	4.8	4.5	3.3	4.2	4.6

2) 서울지역 성별 고용률과 실업률 추이

- 여성의 고용률은 남성에 비해 코로나 상황에서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특징을 보임.
- 서울의 남성 고용률 추이는 최근 3년 간 추세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음. 2019년은 상반기에 상승했다가 하반기 이후로 2020년 4월까지 67.2%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함. 다만, 2020년 5~8월까지 68.3%로 상승했다가 그 이후 다시 하락함.
 - 서울의 여성 고용률 추이는 반대로 최근 3년 간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음. 그러나 2020년 3월과 4월에 고용률이 50.8%까지 급락하였고, 다시 7월까지 상승하다가 8월에 다시 급락하였음. 여성 고용은 남성보다 코로나19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는 특징을 드러냄.
 - 코로나19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더 크게 고용충격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음.

<그림-3> 18~20년 서울 남성의 고용률 추이

(단위 : %)



8 서울의 노동 동향 2020

<그림-4> 18~20년 서울 여성의 고용률 추이

(단위 : %)



<표-3> 20년 서울의 성별 고용률 추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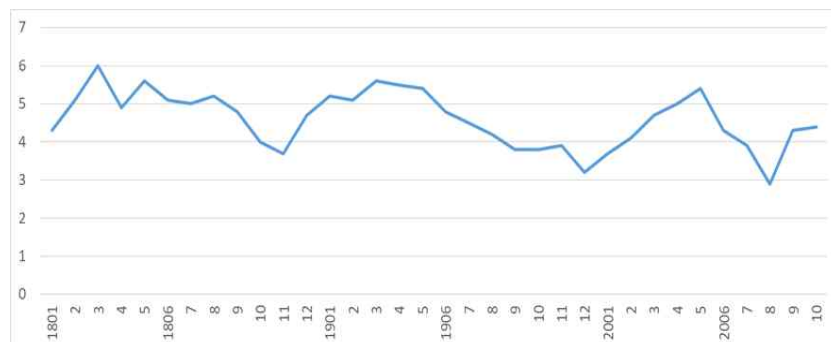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남성	68.0	68.0	67.4	67.2	67.7	67.9	68.0	68.3	67.5	67.6
여성	52.7	52.9	51.4	50.8	51.3	51.4	51.9	51.7	51.1	51.5

□ 2020년 여성과 남성 실업률 모두 유사한 등락 추이를 보임.

- 2020년 서울의 남성과 여성 간 실업률 추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2020년 상반기 5월에 남녀 모두 5.4%, 6.1%로 가장 높은 실업률 수준을 보였다가, 8월까지 2.9%, 3.9%로 다시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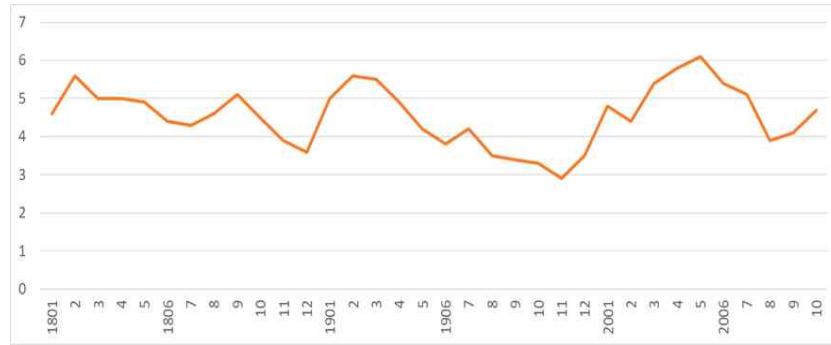
<그림-5> 18~20년 서울 남성의 실업률 추이

(단위 : %)



<그림-6> 18~20년 서울 여성의 실업률 추이

(단위 : %)



<표-4> 20년 서울의 성별 실업률 추이

(단위 :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남성	3.7	4.1	4.7	5.0	5.4	4.3	3.9	2.9	4.3	4.4
여성	4.8	4.4	5.4	5.8	6.1	5.4	5.1	3.9	4.1	4.7

3) 서울지역 연령별 고용률 추이

- 최근 3년과 비교할 때, 20대와 30대에서 2020년 고용률 감소가 크게 나타남.
 - 20대와 30대는 2020년의 고용률이 다른 세대에 비해 고용률이 급락하는 것이 그래프로 드러남. 특히, 최근 3년 간 추이에서 2020년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 특히, 20대는 20년 1분기에 가장 먼저 고용률이 급락하는 경향을 보여 코로나19 고용충격에 가장 1차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30~50대의 다른 세대에선 2분기에 고용충격을 보임. 즉, 시기적으로 20대가 먼저 고용충격을 받고 순차적으로 다른 세대로 충격이 이어진 것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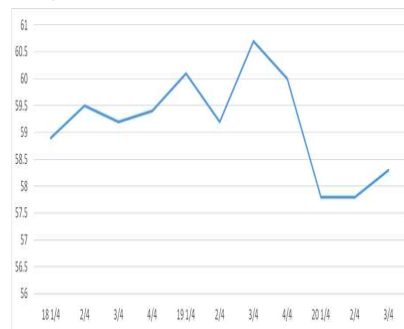
10 서울의 노동 동향 2020

- 60대의 경우 최근 3년 간 고용률이 올라가는 추세였고, 코로나 충격도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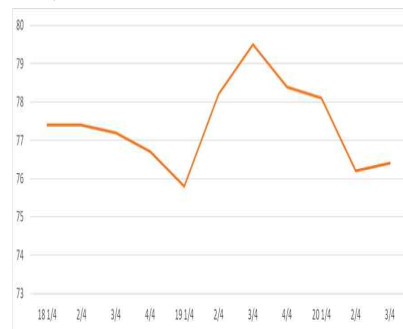
<그림-7> 18~20년 서울 연령대별 고용률 추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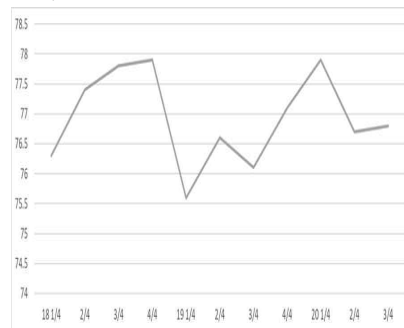
2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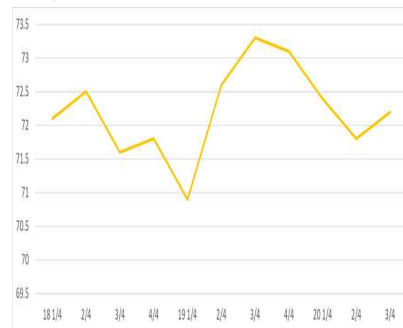
3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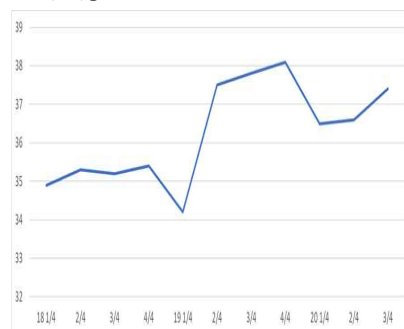
40대



50대



60대 이상



<표-5> 20년 서울의 연령별 고용률 추이

(단위 : %)

	1분기	2분기	3분기
20대	57.8	57.8	58.3
30대	78.1	76.2	76.4
40대	77.9	76.7	76.8
50대	72.4	71.8	72.2
60대이상	36.5	36.6	37.4

2. 취업자 동향

1) 서울지역 종사지위별 취업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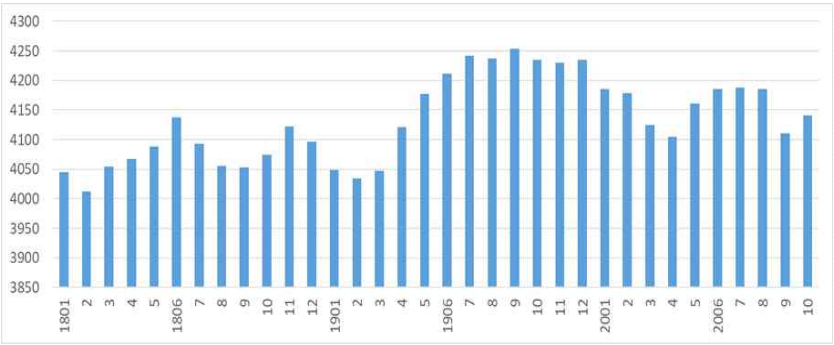
□ 임금노동자들의 취업 추이 코로나19로 크게 탄력적으로 변동

- 임금노동자들은 코로나19에 고용충격을 그대로 나타냈음. 2020년 연초부터 계속 줄어왔던 임금노동 취업자 수가 4월까지 410만 명 수준으로 빠르게 감소하다가, 그 이후 8월까지 418만 명으로 증가함. 다만, 9월에 다시 410만 명으로 급감했다가 10월에 회복하는 모습을 보임.
- 비임금 취업자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양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진 않음. 서울의 비임금 취업자는 최근 3년 간 중장기적으로 하락추세인데, 2020년에도 그 추세가 6월 86만 3천 명 까지 이어지고 있음. 다만, 7월 이후 상승 추세를 보여, 코로나19의 일부 영향을 짐작할 수 있음.

12 서울의 노동 동향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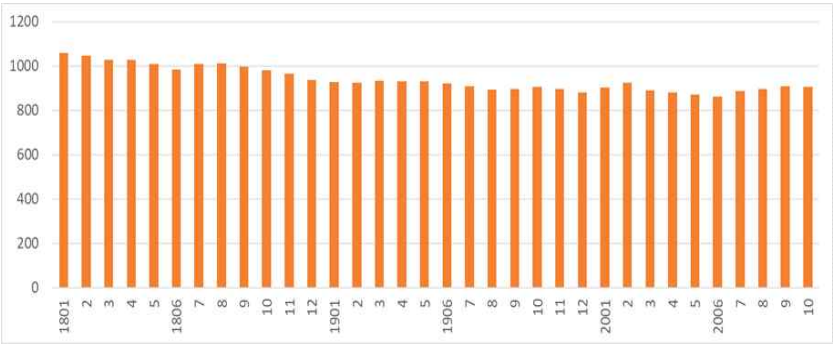
<그림-8> 18~20년 서울의 임금 취업자 추이

(단위 : %)



<그림-9> 18~20년 서울의 비임금 취업자 추이

(단위 : %)



<표-6> 20년 서울의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추이

(단위 : 천 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임금	4185	4179	4125	4105	4161	4186	4188	4186	4110	4141
비임금	904	924	892	882	872	863	888	897	909	907

2) 서울지역 업종별 취업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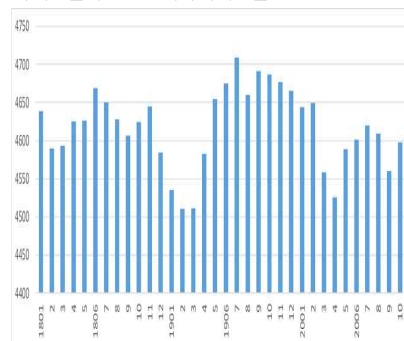
□ 사회간접자본서비스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 크게 나타남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취업자 수의 감소 추이가 눈에 띄게 크게 나타났음. 특히, 도소매음식숙박업은 취업자 수가 2020년 매우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데, 1월 123만 명이던 수치가 9월 115만 명으로 8만 명이 감소함.
- 반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와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의 취업자들은 제한적인 취업자 감소만 있었으며, 오히려 상승 추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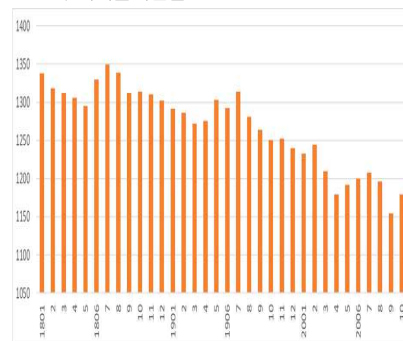
<그림-10> 18~20년 서울의 업종별 취업자 추이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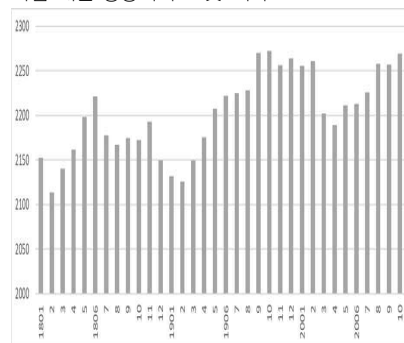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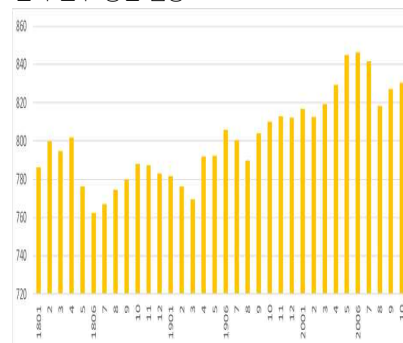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전기·운수·통신·금융



<표-7> 20년 서울의 업종별 취업자 추이

(단위 :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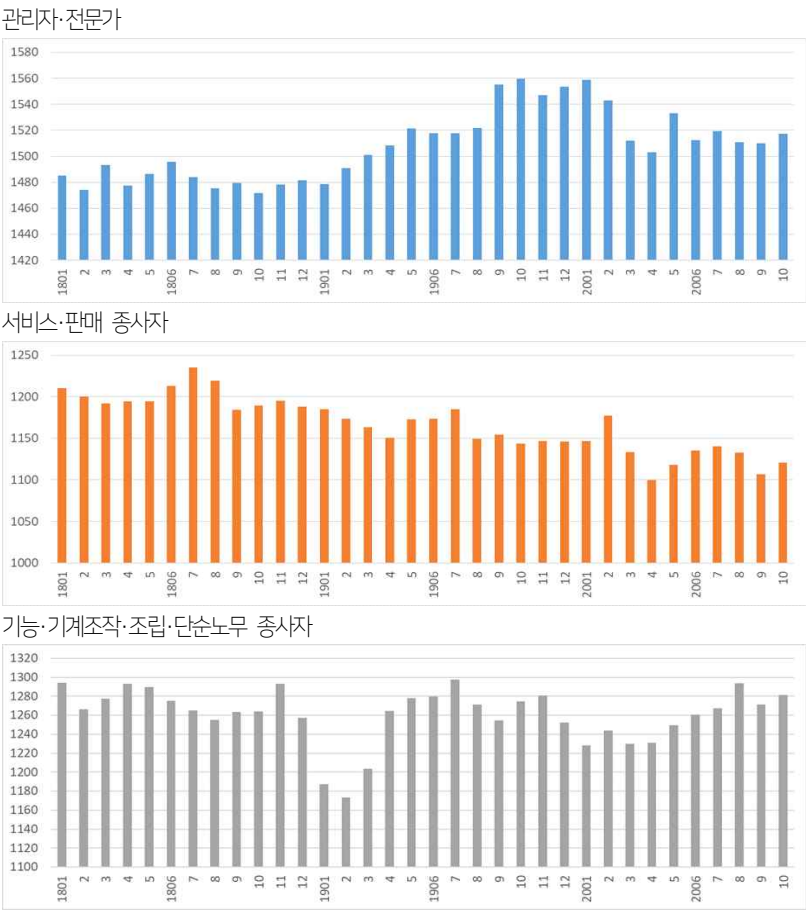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사회간접 자본	4644	4650	4558	4525	4589	4602	4620	4609	4561	4598
도소매숙박 음식	1233	1244	1209	1180	1192	1200	1208	1197	1154	1179
사업·개인· 공공	2256	2261	2202	2189	2211	2213	2226	2258	2257	2269
전기·운수· 통신·금융	817	813	820	829	845	846	842	818	827	831

3) 서울지역 직종별 취업자 추이

- 관리전문직과 서비스·판매종사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 크게 나타남
 - 관리전문직과 서비스·판매종사자의 취업자 수 감소 추이가 눈에 띄게 크게 나타났음. 관리전문직은 1월 155만 명에서 4월 150만 명으로, 서비스·판매종사자는 114만 명에서 109만 명으로 각각 5만 명이 감소하였음. 다행스럽게도, 최근 다시 상승추세를 보임.
 - 반면 기능직과 단순노무직에서는 2019년 하반기부터 감소세를 보였으나 2020년 초에는 감소하지 않았으며, 4월부터는 빠르게 회복하는 추세를 보임.

<그림-11> 18~20년 서울의 직종별 취업자 추이

(단위 : 천 명)



<표-8> 20년 서울의 직종별 취업자 추이

(단위 :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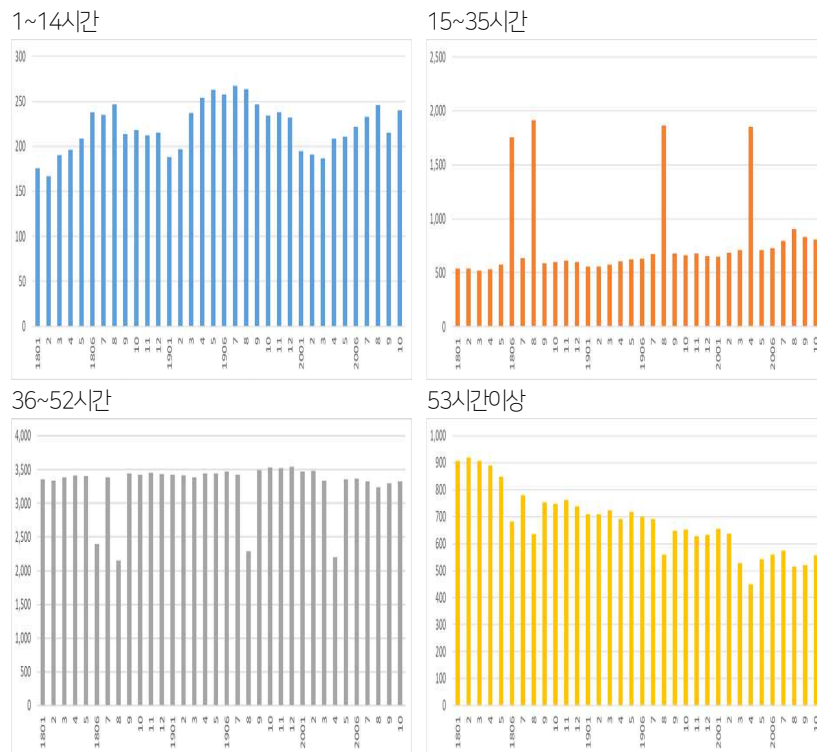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관리전문가	1559	1543	1512	1503	1533	1512	1520	1511	1510	1518
서비스판매	1147	1177	1133	1099	1118	1135	1141	1133	1107	1121
기능기계조 작조립단순 노무종사자	1228	1244	1230	1231	1249	1261	1268	1294	1272	1281

4) 서울지역 취업시간별 취업자 추이

- 풀타임과 초과노동이 줄고, 초단시간과 단시간노동이 늘어나고 있음
- 2020년 코로나19는 36~52시간의 풀타임 노동자와 52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자들을 줄임. 특히, 52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자는 매우 빠르게 감소하였는데, 1월 65만 명이 8~9월 52만 명 수준으로 급감함.
 - 반면, 초단시간과 단시간 노동은 코로나19시기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냄.
 - 코로나19는 평균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을 가속화할 것으로 생각됨.

<그림-12> 18~20년 서울의 취업시간별 취업자 추이

(단위 : 천 명)



<표-9> 20년 서울의 취업시간별 취업자 추이

(단위 :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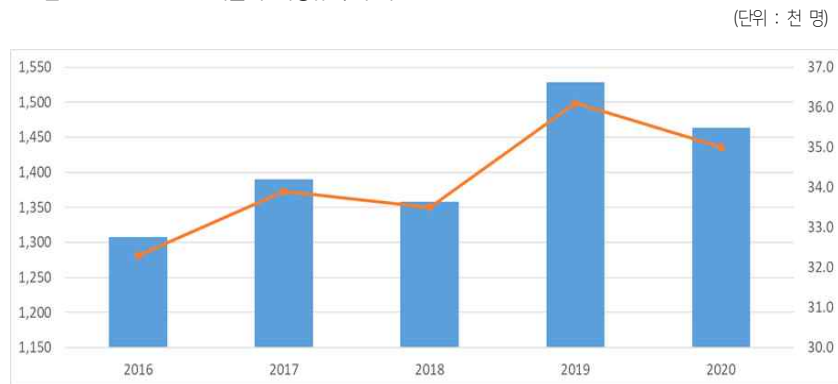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4	195	191	187	209	211	222	233	246	215	240
15~35	648	684	710	1856	710	726	793	904	835	811
36~52	3476	3479	3332	2198	3356	3362	3327	3242	3295	3327
53이상	656	638	528	449	543	561	574	515	520	557

Ⅲ. 서울지역 취약계층 노동 동향

1. 서울지역 비정규직 노동자 추이

- 비정규직은 6만 명 감소하였고, 비중은 35%로 나타남
 - 2020년 서울의 비정규직은 146만 명으로 2019년 152만 명에서 약 6만 명 정도 줄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비중은 35.0%로 예년의 36.1%에서 1.1%p 하락함.

<그림-13> 16~20년 서울의 비정규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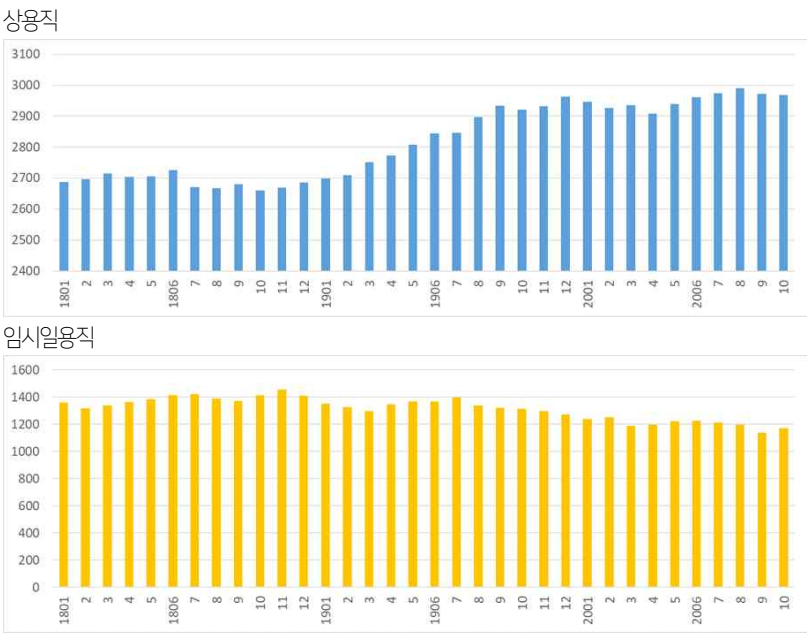
2. 종사상 지위별 임금노동자 추이

- 임시일용직 코로나19로 지속적으로 감소 경향 반면, 상용직 4월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 경향
 - 2020년 임시일용직의 노동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임. 연초에 125만 명이던 노동자 수는 가장 낮은 9월에 113만 명으로 12만 명이 감소함.
 - 반면, 상용직은 4월에 290만 명으로 줄었다가 그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이를 보여 297만 명으로 7만 명이 상승하는 추이를 보임.

<그림-14> 18~20년 서울의 종사상지위별 노동자 추이

(단위 : 천 명)



<표-10> 20년 서울의 종사상지위별 노동자 추이

(단위 : 천 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상용	2947	2927	2935	2909	2939	2962	2973	2990	2973	2968
임시일용	1239	1252	1190	1196	1222	1224	1215	1196	1138	11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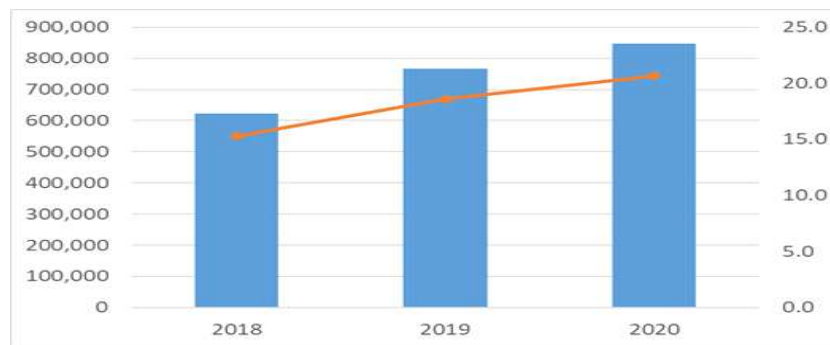
3. 기간제 임금노동자 추이

- 2020년에도 기간제 노동자는 증가하여 최근 3년 간 꾸준히 증가
 - 2020년 기간제는 84만 명으로 2019년보다 8만 명이 증가함. 또한,

임금노동자 중 차지하는 비중도 20.7%로 2.1%p 상승함.

<그림-15> 18~20년 서울의 기간제노동자 추이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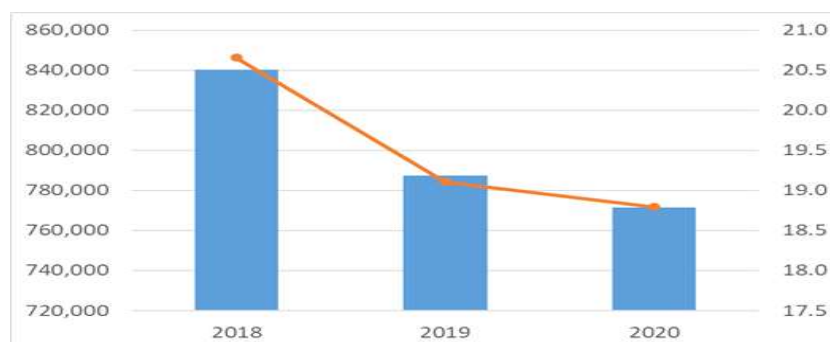
4. 저임금 노동자 추이

□ 최근 3년간 서울의 저임금노동자는 꾸준히 감소

- 시간당임금이 중위임금의 2/3 미만인 저임금노동자는 2020년 77만 명으로 작년보다 1만 명 이상 감소하였음. 임금노동자 중 저임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18.8%로 0.3%p 하락함.

<그림-16> 18~20년 서울의 저임금노동자 추이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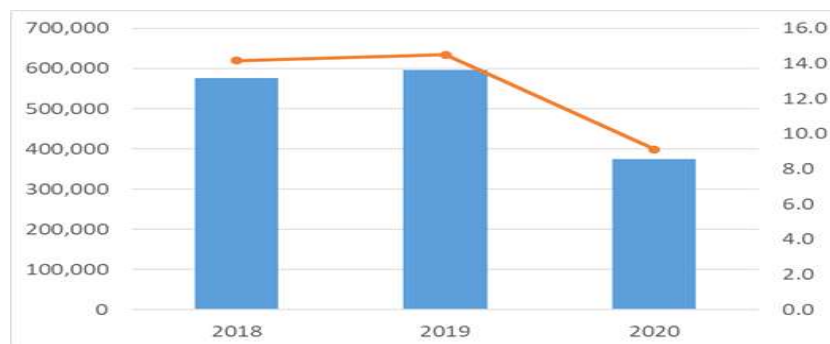
5.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추이

□ 2020년 서울의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급감

- 시간당임금이 최저임금 8,590원 미만인 노동자는 37만 명으로 작년보다 22만 명 이상 감소하였음. 또한, 임금노동자 중 차지 비중도 9.1%로 전년대비 5.4% 하락함.
- 이는 2020년 최저임금 인상율이 2.9%로 소폭 인상된 영향으로 보임.

<그림-17> 18~20년 서울의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추이

(단위 : 명, %)



6. 니트(NEET) 인구 추이

□ 2020년 서울의 니트인구 급증

- 2020년 조사시기에 그냥 쉬었다는 응답 인구가 53만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3만 명 이상 증가하였음. 또한, 서울의 인구구성 대비 5.5%로 전년동월대비 1.5%p 증가하였음.
-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알 수 있는 결과임.

22 서울의 노동 동향 2020

<그림-18> 18~20년 서울의 니트인구 추이

(단위 : 명, %)

